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⑧ - 인평대군 치제문비(麟坪大君致祭文碑)-下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더욱 겸손한 인평대군

인평대군의 세 번 심양, 아홉 번 연경 방문 업적 치하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제1기 후반

숙종서 인평대군(麟坪大君) 천장시(遷葬詩) 특별히 승지(承旨)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한 제문(祭文)

오직 신령한 영이여! 금옥같이 귀한 모습 효도와 우애 깊었네. 한 나라 하간과 같으시어 우리조성과 공경을 다하였네. 성조께서도 경이 훌륭함을 아시고 특별히 대우하셨네. 천룡의 즐거움 천고에 다시 없으시네. 국왕의 총애를 받으심에 두려워 하시었고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더 더욱 겸손하시었네. 분수에 넘치는 일 전혀 하시지 않았고 언제나 부족한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셨네. 불행스러운 때를 만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었네. 뫼뫼는 곧바로 작을 달려 갈 듯 하였고 이해를 따지는 일 전혀 하시지 않았네. 계시는 곳마다 정성을 다하시어 오랑캐들도 모두 감복하였네. 처음엔 비록 위태롭고 의심을 받았으나 마침내 모두가 얼음같이 풀리었다. 일심으로 전력을 다하시어 주야로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네. 빛나고 밝히는 정성이요 충성을 극진히 하시었다. 천지에 부끄럼 없으시고 신명과 같은 신성으로 오라도록 일생을 수고하셨네. 그 모습 일생을 정성으로 일관하시라. 하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그 이치 변함없으시어. 마땅히 오래도록 수하시리라 한도 없고 끝도 없도다. 오랑캐를 꾸짖어 어질지 못하다 하시었고 승화하시어 하늘에 나시리라.

덕은 저처럼 높으시니 하늘 또한 보답이 크시오리라. 인수를 징계치 못하니 그 이치 헤아릴 수 없으리다. 저 성조께서도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너무나 애통해 하시었다. 구름은 하늘에서 배회하고 사십을 갖추어 비명에 실었노라. 글자마다 정성과 슬픔이 깃들었고 마음에 애통함을 다하지 못하노라. 고이와 아내를 내 보살펴 주리라 열려치 마소서. 이는 가장 정열함이니 지극하다 하늘의 뜻이여! 슬프다 서적이 오히려 어찌 말하리. 이때 도망치 못하노라. 한결같은 이치로 뜻을 굳히고 내 또한 살피지 못하여 옥사를 내 태웠노라. 지금에 옛일이 생각나노니 내 어찌 회포를 다 할 수 있으리. 천운이 순환하여 가고 오지 않음이 없을 세, 맑고



치제문비 제기



치제문비 제기

많은 어둠을 모두 밝아지고 미치광이 때들도 눈처럼 없어진다. 수사도 모두 제하고 작록도 옛처럼 하시었네. 국왕의 친아들이시며 또 친동생이시니 금지옥엽이시니. 성조의 우애에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셨다. 선왕의 뜻을 추모하시었으니 반드시 신의 가호가 있으리라. 정치의 여가를 틈타시고 때로는 금원에서 노시기도 하였네. 저 낙봉을 바라보니 사육이 처량하여라. 구원에 유유하니 그 누가 슬픔을 알리오. 광음은 유수같이 한사기 또 바뀌었네. 그대를 잃은 후부터 지금까지 여인 10여년이나 지났도다. 묘를 옮기려 하여 갈한 날 찢고 고통을 감추지 못하였네.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향 사루고 제물을 차려 제사 드리네. 정성을 다하여 제문을 지으시고 지성으로 극진히 하시었다. 영특한 영이여 어찌지 않으시니 이곳에 오시어 흠안하시어.

물술년에 신의 조부 인평대군이 돌아가셨다. 효종께서 친히 제문을 지으셔서 제례에 따라 광주 고읍에 장사지내고 계유년에 국왕이 하사하신 호전 왕방상 이복에 이장하고 또 유거 석외관, 현훈을 하사하시니 승지를 시켜 감시케 하였다. 친히 제문을 지으시고 또 손수 쓰시어 승지를 보내어 제사를 드리오록 하고 도신을 명하여 옛날 석물을 신신에 옮기게 하니 전후의 은혜 유령에 감격하였다. 장례를 마치시고 신이 삼가 양종의 이복을 비석에 새겨 묘 앞에 세우고 숙종께서 제문을 하사한즉 어찰중에 자묘를 공경히 모아 세웠다.

승정 갑신 후 50년(숙종 19, 1693) 금상 19년에 계유 10월 일에 가덕대부 양원군 신 환은 절하고 삼가 기록함.

비석은 이미 갖추어졌으나 세우지 못했더니 갑진년에 이르러 비로소 세우다. 인하여 전액을 하고 추가로 기록함. 가덕대부 서평군 요가 전액하다.

▶제2기 상단 (영조의 제문)
때는 임오년 10월20일 국왕(영조)이 죽근 신하 행 좌승지 이익원을 보내어 인평대군의 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시라 하여라 비로소 세우다. 인하여 전액을 하고 추가로 기록함. 가덕대부 서평군 요가 전액하다.

를 올리도록 하였다. 저 낙봉을 바라보니 사람이 우뚝 솟아 있다. 국왕의 친아들이시며 또 친동생이시니 금지옥엽이시니. 성조의 우애에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셨다. 선왕의 뜻을 추모하시었으니 반드시 신의 가호가 있으리라. 정치의 여가를 틈타시고 때로는 금원에서 노시기도 하였네. 저 낙봉을 바라보니 사육이 처량하여라. 구원에 유유하니 그 누가 슬픔을 알리오. 광음은 유수같이 한사기 또 바뀌었네. 그대를 잃은 후부터 지금까지 여인 10여년이나 지났도다. 묘를 옮기려 하여 갈한 날 찢고 고통을 감추지 못하였네.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향 사루고 제물을 차려 제사 드리네. 정성을 다하여 제문을 지으시고 지성으로 극진히 하시었다. 영특한 영이여 어찌지 않으시니 이곳에 오시어 흠안하시어.

때는 을유년 10월16일에 국왕(영조)이 죽근 신하 행 도승지 조영을 보내어 향 사루고 제물을 차려 제사 드리네. 정성을 다하여 제문을 지으시고 지성으로 극진히 하시었다. 영특한 영이여 어찌지 않으시니 이곳에 오시어 흠안하시어.

때는 을유년 10월16일에 국왕(영조)이 죽근 신하 행 도승지 조영을 보내어 향 사루고 제물을 차려 제사 드리네. 정성을 다하여 제문을 지으시고 지성으로 극진히 하시었다. 영특한 영이여 어찌지 않으시니 이곳에 오시어 흠안하시어.

▶제2기 하단 (정조의 제문)
때는 임자년 3월25일 국왕이 죽근 신하 행 도승지 이병정을 보내어 인평대군의 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시라 하여라 비로소 세우다. 인하여 전액을 하고 추가로 기록함. 가덕대부 서평군 요가 전액하다.

성조께서 이르시기를 아름답고 아름다운 내 동생이여! 맛있는 음식 갖추어 제단을 살하여 제사 지내느니라. 오랑캐 산에 들어가니 높고 높은 산에 눈만이 가득 쌓이고 말은 백조를 뜯어먹고 사람은 연방을 뚫는다. 모진 추위가 크게 밀려와 손으로 이마를 감싸기도 하였다. 동으로 돌아오니 기쁨이 가득하고 나누어 연저에 기거한다. 누각에서 꽃을 바라보며 조석으로 삼상에 올라간다. 우편으로 보낸 서신 빨리도 전해지고 호 궁을과 훈 적음이 번갈아 올리고 학도 머물고 용도 머무르니 이 음악을 길게 그치지 마라. 겸양 공손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효감이 피라 밝은 듯 하여라. 세 번씩이나 심양에 갔고 아홉 번씩이나 압록강을 건너셨네. 일이 생기면 앞장을 섰고 국왕의 일이라면 먼저 하였다. 오랑캐 사나워서 목을 늘이고 오랑캐가 꾸짖어도 말이 없었어. 우리를 보호하여 옛날처럼 즐기도록 하시었고 우리 군사 쉬도록 하시었네. 한나라 풍화에 계시오니 하간 동쪽은 편안하니 내 또한 회오를 누를 길 없네. 다시 일오년을 만나 추모함이 간절하고 깊어라. 특명을 내려 수레를 정비하여 옛 자취를 받들고 살피라. 이에 조양에 오르니 석서가 지척에 있었다. 그 뜻을 포함 수 없어 승선이 잔을 따라 올리다. 어찌 내 뜻만이 옛모습을 사모 하리오. 영이 만일 지혜했다면 흠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영이! 경은 오직 나의 동생이요. 일찍이 충성과 공경을 다 하였으며 이에 미루어 어찌지고 후덕하시었다. 근심스럽고 어려울 때를 만나신 자신의 몸 돌보지 않으셨네. 세 번이나 심양 땅에 체류 하였고 아홉 번이나 연경에 들어가셨네. 성조께서 아름답게 여기시어 돈돈하고 우애로움 변치 않았네. 은혜로운 말씀으로 지극히 추모하시니 귀신이 있다해도 부끄럼이 없으리라.

열성조의 뜻을 이루었고 특별히 큰 은혜 입으시었네. 군왕께서 글을 내리시어 밝게 빛나시고 우뚝 솟은 저 종비로다. 내 선인을 계속 함께 미쳐 뜻을 나타낼 길이 없었네. 유교를 침간하여 옛날의 회포를 위로하노라.

더구나 이 해를 맞이하여 회포에 찢는 일이 우연함이 아니로다. 제문을 쓰시고 사람을 시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니 마음에 흥청한 사슴소서.(이 번역문은 포천군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①①

영국과 미국의 수사제도 비교

영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여 민간인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하에 경찰이 업무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엄격한 입의수사원칙을 시행하고 있어 영장의 발부에는 엄격한 사법적 규제가 행해지고, 변호사제도도 확립되어 수사의 초기부터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 이러한 영국의 자치경찰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경찰기구는 내무부와 독립된 관리위원회(serve authority)를 두어 내무부 직속으로 수도경찰청·과학수사연구소·경찰대학·경찰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청을 운영한다. 자치경찰청장은 자치경찰청을 운영하며, 자치경찰청장을 선임하고, 국고보조금을 책정하며, 경찰감사 간부교육과 정책연구 및 과학수사지원을 통해 지방경찰을 지도·조정·통제하고 있다. 독립된 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국가범죄수사대, 국가범죄정보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경찰기구는 도(county)단위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여 독립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어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관의 삼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형용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무부장관은 수상이 임명하고, 국가범죄수사대장과 국가범죄정보국장은 관리위원회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의 각 임명한다.

영국에서는 경찰청이 독자적 수사권과 각종 영장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수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훈방조치·교포수행에 대한 벌금부과, 고발 및 국립 기소청에 수사서류 송부할거나 사안에 따라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영국은 전통적인 사인소추주의에 따라 개인 또는 경찰이 소추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소추권이 따로 없었다. 그러다가 1985년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의 창설로 검사에게도 소추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국립기소청과 함께 생겨난 영국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고, 다만 경찰에 대하여 기소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경찰수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용, 공소준비, 법원에 기소하고 함소에 관하여 고문변호사를 지도하는 등의 소추권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검사는 상호 의견교환과 자문의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식민지시대부터 개척지 자유수단으로 주민이 직접 집권자를 통해 보안관을 선출하는 마을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1838년 보스턴(Boston)에 도시경찰이 탄생되었고, 1905년에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의 주경찰이 설립되었고, 1908년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신설되었다. 이를 계기로 연방 각 부처와 각 주에 다양한 형태의 법집행기관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의 수사 체제는 중앙집권적인 단일체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된 약 4만개의 분권체제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찰은 연방과 자치단체의 경찰기구로 분산·운영되고 있으며, 각주마다 구체적인 조직·역할·임무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연방과 자치단체간에도 종적 관계는 없으며 횡적인 관계만 있다. 이러한 조직상의 특성이 수사에도 반영되어 개개의 경찰조직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찰에는 연방정부 소속의 연방경찰과 각 주의 주경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주마다 일률적이지는 않다. 연방경찰(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은 연방법률의 집행, 연방범죄의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경찰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방위부에 소속되어 집달리 및 경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공안관(U.S. Marshall), 법무부 소속의 연방수사국(FBI), 특별범죄를 담당하는 이민국, 재무부의 비밀경찰과 마약국, 기타 보안관을 담당하는 행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연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훈방조치·교포수행에 대한 벌금부과, 고발 및 국립 기소청에 수사서류 송부할거나 사안에 따라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경찰(State Law Enforcement Agency)에는 경찰과 행정관 집달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안관(Sheriff), 주 전역에 걸친 범죄를 수사하는 주경찰과 경찰의 주력이며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경찰(Municipal Police) 등이 있다. 주경찰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나 군보안관(County Sheriff)은 임명 또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시경찰은 대부분 단체장이 임명하며 합의체로서 경찰위원회 또는 독립체 경찰국장이 관리·운영한다.

미국에서 각주의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엄격하게 독립되어 있으며, 검찰제도에서도 연방경찰청과 주경찰청이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검사(Public Prosecutor)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노 영 민
포천경찰서

하며, 위 연방검사가 추천하여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임명하는 검사보가 그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경찰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는 대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헌법상의 공직이며, 다수의 검사보(Assistant D.A.)를 임명·지휘한다. 지방경찰청에는 대원의 1심법원과 치안법원에 대응하여 증거부와 경조부를 두며, 검사는 정부 및 주민에 의해 선출된 법률가로서 주지사와 선거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는 영미법계의 전통에 따라 검사는 법률가 또는 공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에 있어 경찰은 중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범하였고, 또 범인이거나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그의 강력한 강제추진권, 즉 압수수색권, 피의자신문권, 검증권, 증거조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주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의 경죄와 교통사고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추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체포된 뒤에는 불필요하게 지체없이 피의자를 대동하여 체포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각종 권리를 피의자에게 고지한다. 한편 체포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정상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체포의 요건에 대해서도 대륙법계처럼 특별한 요건이 없고 상당한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에서 있어서 檢事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마약·정치·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와 같은 극히 일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소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아인스월드
매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세계 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60일간의 프랑스여행

“아인스월드에서 가면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프랑스 문화에 빠져-법시대

- 감미로운 선물의 밤
 - 고풍적이 감동하는
 - 프랑스의 전통
- 감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와인과 크래페의 멋진 만남
-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를 알고 하는 연극은 어떤가?
 - 연극수업을 체험해보시오!

여러날은 프랑스에서~

- 여권을 위한 인형극
 - 어린이의 몸극연
 - 인형극 공연을 통해 규칙적인 학습권을 체험
- 환상의 물놀이
 - 자네의 몸이 하나 내려가면
 - 아인스월드
- 피자 도우 Show!
 - 피자 반죽을 이용한 화려한 쇼 (Mr.Pizza 3명당 1명)

즐거움이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폴마르드 카페 이벤트
 - 카페/커피/제과/제빵
 - 생야 놀이하는 프랑스 마이스
- 민방위 아인스월드
 - 노년/장애/소년/소년
 - 자네의 몸이 하나 내려가면
 - 생야 놀이하는 프랑스 마이스
- 포도밭 이벤트
 - 프랑스 자네의 몸이 하나 내려가면
 - 함께 노래
 - 체험할 수 있는 생야 놀이
 - 생야 놀이하는 프랑스 마이스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후원

세계최고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대표전화 032-320-6000

www.ainsworld.com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보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